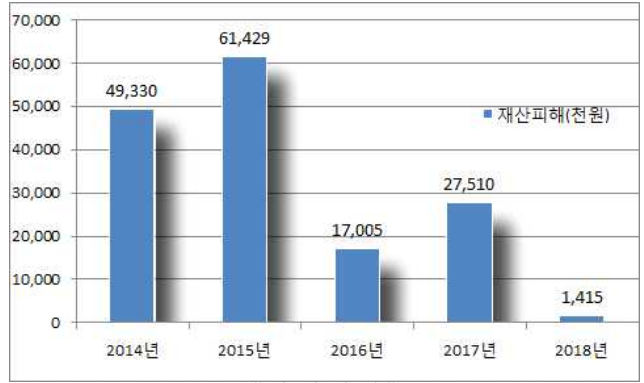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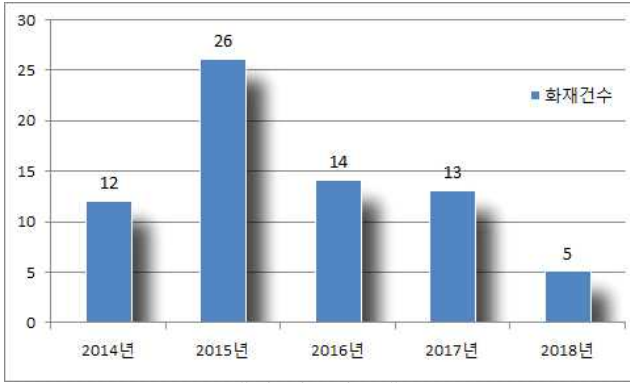


(7월) 주요 재난 안전 사고 예보

장마철 낙뢰화재 발생현황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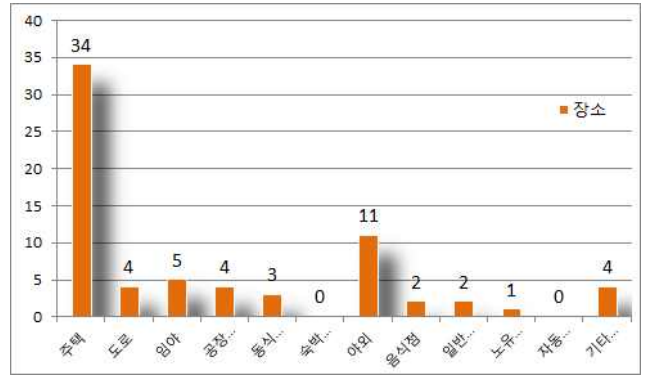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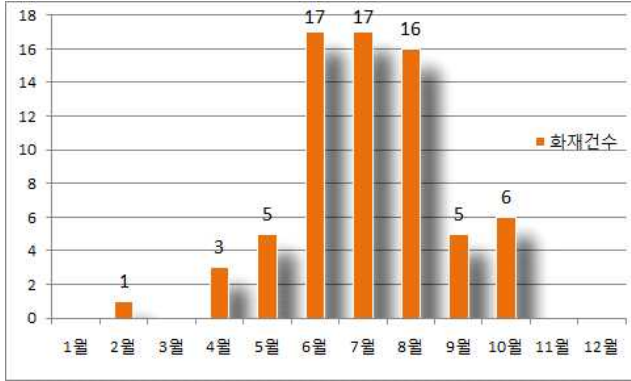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5년간 낙뢰화재 출동현황



- 최근 5년간('14~'18) 도내 낙뢰로 인한 화재가 총70건, 156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연도별로는 '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름철(6월~8월)에 77.4%(50건)가 발생하여 여름철 낙뢰화재 예방이 각별히 요구된다.
- 월별로는 6월, 7월이 각 17건, 8월 16건, 10월 6건, 5월, 9월이 각 5건, 4월이 3건, 2월 1건 순으로 분석 되었다.

《월별 화재발생 현황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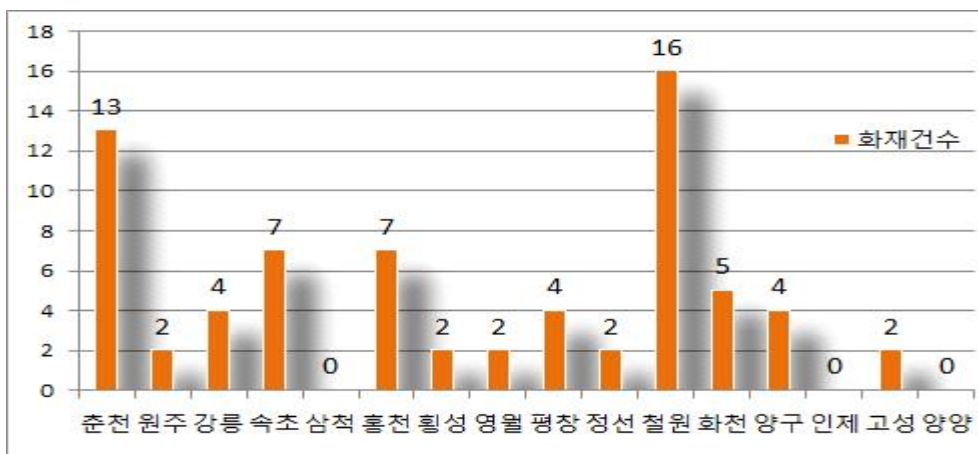
구분	계	2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재산피해
계	70	1	3	5	17	17	16	5	6	156,689
2014	12			2	4	3			3	49,330
2015	26		3		7	4	9	1	2	61,429
2016	14	1			2	6	4	1		17,005
2017	13			1	4	3	2	3		27,510
2018	5			2		1	1		1	1,415



- 화재발생 주요장소로 주택이 34건(48.6%)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외 시설물 11건(15.7%) 순이며, 시간대별 분석하면 오후(16~17) 시간대가 22건(31.4%)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.
- 또한 지역별은 철원군이 16건(22.9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춘천 13건(18.6%), 홍천, 속초 각각 7건(10%), 화천 5건, 강릉, 평창 양구 각각 4건, 정선, 고성 황성 원주 각각 2건 순으로 발생하였다.

《지역별 화재발생 현황》

계	춘천	원주	강릉	속초	삼척	홍천	황성	영월	평창	정선	철원	화천	양구	인제	고성	양양
70	13	2	4	7	0	7	2	2	4	2	16	5	4	0	2	0



1. 낙뢰가 예상되나요?



- ▷ 야외에서 일하거나 등산, 골프 등을 할 경우에는 낙뢰에 대한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합니다.
- ▷ 건물 안, 자동차 안,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.
- ▷ 낚시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운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.
- ▷ 낙뢰가 예상될 때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2. 낙뢰가 칠 때 안전한 행동요령



- ▷ 산에서는
 -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정상부에서는 낙뢰발생 시 신속히 낮은 곳으로 이동 합니다.
 -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. (약 10km 이내에 뇌전 발생)
 - 낙뢰 발생시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,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.
 - 정상부 암벽 위에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키 큰 나무 밑은 낙뢰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피합니다.
 -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, 몸에서 떨어뜨리도록 합니다.
 - 야영 중일 때는 침낭이나 이불을 깔고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
 -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최소 5m 이상 떨어지되,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아야 합니다.
 -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은 피하도록 합니다.

-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합니다.
-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,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대피합니다.

▷ 야외에서는

- 평지에서 낙뢰가 칠 때에는 몸을 가능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.
- 평지에 있는 나무나 키 큰 나무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합니다.
-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.(약 10km 이내에 뇌전 발생)
- 농촌에서는 삽, 괭이 등 농기구는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낮추도록 합니다.
-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. 차에 번개가 치면 전류는 도체인 차 표면을 따라 흘러 타이어를 통해 지면에 방전됩니다.
- 낚시꾼은 낚싯대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낮추도록 합니다.

▷ 가정에서는

- TV, 라디오 등을 통하여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.
- 집에 낙뢰가 치면 TV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 두고,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창문을 모두 닫고 감전 우려가 있는 샤워, 설거지 등은 금해야 합니다.
- 금속성 건축자재 등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출입문이나 창문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3. 낙뢰사고 응급처치요령



-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.
- 구조해 내면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의 여부를 살핍니다.
-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어 있을 때는 인공호흡을, 맥박도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병행해서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.

- 119 또는 인근 병원에 긴급 연락하고,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응급조치 하고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시킵니다.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.
- 환자가 흥분하거나, 떨고 있는 경우에는 말을 걸든지 침착하게 합니다.
- 사고가 등산 중이거나 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더라도 절대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, 심장 마사지, 지혈 등의 처치를 계속합니다.
-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전해 보여도,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히는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응급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.